

※ 지난 2월 25일 열린 2020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로 증서를 받은 7명 가운데 김진은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과 윤나영 나래장학생을 만났다.

“연구실적 평가하는 곳은 아산재단이 유일하다”

글 유인종 / 사진 송은지

1992년생, 서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김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은 말투와 행동이 앳됐다. 엘리트 과학자 양성코스인 고교(경기과학고)와 대학(KAIST 생명과학과) 내내 공부에만 매달렸기 때문일까. 그러나 그 공부에서만큼은 당돌하고 저돌적인 면을 보인다.

그가 2014년 KAIST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을 때다. 국내와 해외 중 어디에서 학업을 이어갈지 결정을 못 해 대학원 진학을 미뤘다. 그해 6월, 미국 뉴욕에서 ‘인지’(認知)를 주제로 전 세계의 신경과학 대가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장학금 500여만 원을 모아두었기에 이 돈으로 과감하게 뉴욕행 비행기표와 학회 참가비를 결제했다.

뉴욕에 가는 김에 뇌 연구의 권위자로 당시 뉴욕대 교수이던 서성배 교수를 만나고자 했다.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끝에 기어코 서 교수와의 만남을 이루어냈다.

서 교수와의 두 번째 만남은 2016년 성사됐다. 10년간의 뉴욕대 교수 생활을 청산한 서 교수가 KAIST 생명과학과에 부임하자 여러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그 또한 같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이어진 연구 인연은 2019년 3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와 서 교수 등이 ‘스트레스에 따른 세포 변화’를 관찰한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것이다. 동물의 생사를 좌우하는 ‘적인가, 먹이인가?’를 판단하는 세포의 기능을 밝힌 이 연구의 과장은 무척 컸다. 여러 언론에 소개되는 한편 정신생물의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KAIST 대학원은 석·박사과정을 통합해 5년, 10학기로 운영해요. 2019년까지는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9학기를 맞



김진은 장학생은 “임상의학과 연계해 정신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은 올해는 장학금을 신청할 곳이 마땅치 않더군요. 여러 곳을 검색하다가 아산재단을 알게 됐어요. 연구실적을 평가해 장학금을 주는 곳은 아산재단이 유일하더라고요. 아산장학생이 된 덕분에 등록금만이 아니라 생활비와 학술활동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는 경기도 수원에서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자신에게 창의력이 있다면 그건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준 아버지(김현국·58)와 어머니(장지원·51) 덕분이라고 말했다. 과학고에 다닐 때 뇌성마비재활센터에 봉사를 갔다가 “우리 몸은 왜 불편한 건가요?”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고 근원적인 치료법을 찾고자 의사가 아닌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초파리와 생쥐를 모델로 본능을 뇌에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학술적인 영감을 주는 기초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알바’ 부담에서 벗어났다”

1999년생, 우리나라로 스물두 살인 윤나영(이화여대 심리학 과3) 학생은 그동안 무척 바쁘게 살았다. 우선 아르바이트(알바)! 대학에 입학한 2017년부터 알바를 쉰 적이 없다. 부모에게 맘 편히 등록금을 받을 만큼 집안형편이 넉넉지 않은 탓이다. 과외를 했고,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백화점에서 판매도 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을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기도 했다. 개강 중일 때는 보통 주 3일 20시간을, 방학 때는 어느 직장인들처럼 주 5일 일했다.

공부 욕심 많은 그가 학점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틈나는 대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평점 4.3 만점에 늘 3.8~4.0의 성적을 유지해왔다. 건강체가 아닌 몸이 공부와 일에 쫓기다보니 허리에 이상이 생겼다.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결국 2학년 2학기 들어서며 한 학기를 휴학하고 말았다.

공부와 알바 외에 하는 일이 또 있다. 앞으로의 목표인 심리상담가와 연관 있는 멘토 활동이다. 허리가 좀 나아져 복학하기로 한 2018년 겨울부터 프로메스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진학 상담활동으로 대학생들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멘토링을 해준다. 그의 경우에는 2018년에 담당한 학생이 “올해 이화여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해 후배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같은 대학 학생들에게도 멘토 활동을 한다. 다른 대학에서 편입왔거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대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면서 봉사시간을 인정받는다. 벌써부터 훌륭한 상담가의 자질을 드러내는 그는 서울 창덕여고를 졸업하고 논술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해 1학년 등록금을 면제받았다. 2학년과 3학년



학과공부와 다양한 알바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윤나영 장학생. 독서량이 많아서인지 생각이 무척 깊었다.

1학기 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연계형 장학금과 교내 복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대부분을 충당했다.

문제는 3학년 2학기를 맞는 올해였다. 10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으며 투석해온 아버지(47)가 건강이 더욱 나빠져 직장을 그만뒀다. 아버지의 퇴직금이라는 제법 많은 돈 탓인지 그동안 받던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 여러 장학재단을 알아보다가 눈에 띈 곳이 바로 아산재단이었다. 부모의 갑작스런 건강악화나 사업 실패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지원하는 아산재단의 나래(SOS)장학생은 그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나래장학생으로 선정된 덕분에 알바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한 부전공(통계학)도 이수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이에 비해 빨리 어른이 된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